섬진강변서 자란 고당도 '구례 꿀수박' 맛보세요

40여 농가 본격 수박 출하… 20ha 시설하우스서 연 1000톤 생산

내달 11~12일 문척면서 '구례 수박알리기' 주민 주도 체험 행사

구례 문척면 섬진강변 던데들에서 자란 꿀수박의 출하가 본격화됐다.

29일 구례군에 따르면 맑고 깨끗한 섬진강 청정지역에서 재배되는 구례 수박은 5월 중순부터 수확하기 시작해 6월 말까지 생산된다.

구례군은 게르마늄 성분이 많은 변성암 분포도가 넓은 지질학적 특성으로 타 지역에 비해 토양 속 게르마늄 함량이 5배가량 높고 청정해 건강하고 깨끗한 전국 최고의 수박 산지로 인정받고 있다.

구례에서는 친환경 재배 13 농가를 포함한 40여 농가가 20ha의 시설하우스에서 연간 1000t의 수박을 생산하고 있다. 총 18억원의 수박 판매액은 농가당 평균 4500만원의 소득으로 이어진다.

친환경농법으로 생산한 수박이 알려지면서 일반에도 인기가 있으며 각 지역 학교 급식용으로 납품되고 있다.

최근에는 일반 수박과는 다르게 줄무늬가 없어 검은색을 띠며 껍질이 얇고 향과 당도가 높은 흑수박을 도입해 재배면적을 확대하고 있다.

구례 문척면에서 생산되는 꿀수박의 맛을 알리기 위해서 마을 주민들은 6월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구례체험여행협동조합센터에서 '문척수박 알리기 체험행사'를 개최한다.

명품 흑수박 시식과 현장 판매, 구례 특산품 소개, 작은 음악회, 민속문화 체험 등 다채로운 행사가 마련됐다.

/구례=오광범 기자

보성 BS삼총사 이모티콘 무료 배포 이벤트

내달 2일부터 선착순 3만5000명 지급

보성군이 오는 6월 2일 농특산물 캐릭터 'BS삼총사' 이모티콘 무료 배포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모티콘 무료 배포 이벤트는 '보성군청' 카카오톡 채널 친구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미리 카카오톡에서 '보성군청' 채널을 추가해 두면 당일 14시부터 순차적으로 다운로드 메시지가 전달된다. 선착순으로 총 3만 5천 명에게 지급된다.

이번에 출시되는 이모티콘은 16종이며, 사용기간은 6월 2일부터 7월 1일까지 30일간이다.

보성군 관계자는 "많은 분께서 이모티콘 재출시를 요청해주셨는데, 다시 이벤트를 할 수 있어서 뜻깊고 보성군 캐릭터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보성군 특산품 캐릭터인 BS삼총사는 2020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가를 돕기 위해 탄생한 캐릭터로 보성 대표 특산품인 보성녹차와 벌교꼬막, 보성 키위를 모티브로 만들어졌다.

2020년 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한 '우리동네 캐릭터' 대전에서 대상을 수상하면서 전국적인 인지도를 쌓았으며, 유튜브와 방송, 축제, 행사 등에 참여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보성=장국도 기자

여수시, 정부합동평가 8년 연속 우수기관

상사업비 1억3000만원 · 포상금 2000만원 확보

여수시가 최근 2022년 정부합동평가에서 '전라남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

여수시는 전남 최초로 8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도내 최고의 행정도시로 입지를 다지게 됐다.

'정부합동평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국가 위임사무와 보조사업, 국가 주요 시책 등을 행정안전부가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합동으로 시행하는 종합평가다.

공정성을 위해 중앙부처 · 시 · 도 합동평가단의 집합 검증과 시 · 도 상호 검증을 통해 평가를 진행한다.

여수시는 이번 선정으로 8년 연속 우수기관이라는 영예와 함께 상 사업비 1억 3000만원, 포상금 2000만원도 확보하게 됐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시기였으나 정부합동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것은 직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준 덕분이다"며 "우수한 행정역량을 대내외적으로 인정받은 의미 있는 결과"라고 말했다.

/여수=조일상 기자

광양시 중마동~광양읍 간 국지도 58호선 가로등 설치 완료

광양시는 야간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낮과 밤이 빛나는 광양' 이미지에 걸맞은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지도 58호선 일부 구간에 가로등을 신규로 설치했다.

이번 사업은 시비 1억 3천만 원을 투입해, 국지도 58호선 중 사곡 입구~공원묘지 입구 구간에 편측으로 가로등(LED150W) 21등을 설치한 사업이다.

해당 구간은 평소 출퇴근 시간에 차량 통행량이 많고 도로 주변이 어두워 민원이 많이 발생했던 구간으로, 가로등 설치가 교통사고 등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설치 가로등은 기존 가로등 표찰 대신 기초번호를 삽입한 표찰을 설치해 교통사고 등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배록순 시설관리과장은 "이번 사업 구간처럼 교통량이 많은 도로에 운전자 시야를 확보할 수 있도록 가로등 설치를 꾸준하게 추진하고 있다"며, "시민의 안전한 통행권과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가로등을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는 작년부터 국지도 58호선 가로등 설치를 진행해 왔으며, 용강정수장~사곡주유소 구간 수목형 중앙분리대에 가로등 33등을 설치한 바 있다.

순천 만 80세 이상 어르신 목욕 이 · 미용 바우처 지원

1942년 6월 이전 출생자 대상 "6월 말까지 신청 서두르세요"

순천시는 올해부터 만 80세 이상 어르신에게 목욕 및 이 · 미용비를 지원하는 '어르신 건강바우처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어르신 건강바우처 지원사업은 만 80세 이상 어르신들의 쾌적하고 건강한 삶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바우처 지원금은 월 1만원씩 연 2회(1월 · 7월) 지급하여 연간 12만원이 제공되고 한번 신청하면 지원 자격에 변동이 없는 한 재신청 없이 반기마다 자동 충전된다.

또한 올해 12월 15일까지 신청한 건에 한해, 신청 월이 속한 반기분 전액을 지원할 예정이다. 다만, 노인주거복지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자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재가급여를 받는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어르신 본인 또는 보호자(배우자 및 직계혈족)가 신분증 등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바우처 사용은 '순천시 건강바우처 카드 가맹점'으로 등록된 목욕 및 이 · 미용 업소에서만 사용가능하다.

순천시 관계자는 "상반기 바우처 지원 대상자(1942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는 6월 말까지 바우처를 신청해야 상반기 지원금 전액을 받을 수 있고 7월 이후 신청 시 상반기분은 소급해 지원하지 않는다."라며, "아직 신청하지 않은 대상자는 서둘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안내를 받아 신청하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순천=조순익 기자

곡성세계장미축제, 야간 드라이브 명소로 입소문

곡성군이 제12회 곡성세계장미축제 기간(5월 21일부터 6월 6일)에 한정하여 평일은 19시 30분, 주말에는 20시 까지 매표 시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또한 입장객에 한해 매일 22시까지 장미공원을 개방한다.

일찍 찾아온 더위와 관람 인파를 피해 오롯이 장미정원을 즐기고 싶다면 퇴근 후 섬진강 기차마을로 드라이브를 떠나는 것을 추천한다.

주말 저녁에는 방문객들을 위해 다채로운 공연도 준비했다.

▲5월 28일 18시, 6월 4일 18시에는 스트릿걸스파이터 준우승 '미스 몰리'의 댄스 공연 ▲5월 29일 18시에는 대한민국 최고 보컬리스트인 김범수, 포레스텔라의 미니 콘서트 ▲6월 6일 18시에는 조선판스타 우승자 '김산옥', 인기 가수 '홍주'의 공연 등이 예정되어 있다.

/곡성=이상석 기자

광양 '찾아가는 흡연예방 인형극' 호응

지역 내 어린이집 원아 대상 '아빠의 구름 사탕' 공연

광양시보건소는 오는 31일까지 지역 내 희망 어린이집 14개소 1400여 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어린이 흡연예방 인형극 '아빠의 구름 사탕' 공연을 호응 속에 진행하고 있다.

시는 유아기부터 흡연의 해로움과 금연의 중요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형성하게 하여 조기 흡연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찾아가는 어린이 흡연예방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다.

흡연예방 인형극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친숙한 캐릭터 손 인형을 접목해, 아빠가 가족과의 금연 약속을 지키지 못해 체력 저하로 체육대회 달리기에서 낭패를 보고 금연을 결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어린이들은 공연 내내 인형극에 즐거워했으며, 학습 효과를 높이는 금연 퀴즈타임과 신나는 율동시간, 캐릭터 인형과의 기념 사진촬영 시간을 가졌다.

이번 공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평소 공연문화를 쉽게 접할 수 없었던 취학 전 아동들에게 공연문화의 갈증 해소 역할도 톡톡히 했다.

서영옥 건강증진과장은 "인형극은 아이들이 생동감 있는 주인공과 하나 되어 웃고 즐길 수 있고 몰입도가 높아 흡연예방 교육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광양=조순익 기자